

<p>Chapters 9-11 of Romans deal with one of the greatest turnabout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ith the coming of Jesus, the Gentiles, whose lives have been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away from God, are suddenly at the centre of the Messiah’s kingdom. The Jews, on the other hand, whose whole orientation has been towards God and towards righteousness, now find themselves on the outside. It is like the parable of the two sons in Luke 15 – the runaway, prodigal son comes home and the party is held for him, but the dutiful, stay-at-home son stands outside, angry and left in the cold.</p>	<p>로마서 9 장-11 장은 세계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반전 중의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잘못된 방향으로의 삶을 영위하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메시아 왕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 그들의 모든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과 의로움이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스스로를 그 밖에서 찾습니다. 이는 마치 도망쳤던 탕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를 위해 잔치가 열렸으나, 순종적이며 집에 머물렀던 아들은 노여워하며 추위에 남겨진 채 밖에서 있던 누가복음 15 장의 두 아들의 비유같습니다.</p>
<p>Paul is troubled by what has happened and in chapters 9-11 he is trying to work out how and why it has happened. For him, it is not just an academic exercise – it is <u>personal</u>: “I am an Israelite myself, a descendant of Abraham, from the tribe of Benjamin” (Romans 11: 1). This situation is breaking his heart, causing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9: 2). It drives him to his knees in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that they may be saved” (10: 1). It dictates his evangelistic strategy, forcing him to go time and time again to the Jew first, even though they keep slamming the door in his face.</p>	<p>사도 바울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고민하고, 9 장-11 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또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예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도 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롬 11:1).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9:2)으로 인한 이러한 상황은 그의 마음을 찢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무릎을 꿇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0:1) 기도하게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의 면전에서 문을 세차게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번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만드는 그의 복음적 전략을 구술하고 있습니다.</p>
<p>But this turn of events also concerned Paul <u>pastorally</u>. In Romans 11: 13 he says, “I am talking to you Gentiles. In as much as I am the apostle to the Gentiles.....”. The church in Rome to which Paul was writing was probably planted by Jewish people who had come from Rome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Pentecost and were in the crowd when Peter preached Christ and 3,000 people were converted. After their time in Jerusalem, they would have dispersed again to various parts of the empire, including Rome. So, initially, the church in Rome would have consisted mainly – indeed almost entirely – of Jewish believers. But then in 48AD, when Claudius kicked the Jews out of Rome, the church would have become largely a Gentile church. In view of the culture clash we read of in Romans 14, there may well have been some Jews among them at the time Paul was writing, but at this point in his letter he is concerned to speak particularly to the Gentiles: “Don’t forget this, you Gentiles! Claudius may have kicked the Jews out of Rome, but don’t you dare kick them out of your church! When God is stretching his arms out to a disobedient and rebellious people, don’t you turn your back on them!” Reading between the lines, it seems to me that Paul is warning Gentile Christians against arrogance and superiority and, worse than that, anti-Semitism.</p>	<p>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전환은 또한 사도 바울을 <u>목회적으로</u> 고려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11 장 13 절에서 그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3000 여명의 사람들이 개종하였을 때, 그 무리에 있었고, 오순절을 위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을 것 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 이후, 그들은 로마를 포함한 그 제국의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로마 교회는 주로- 거의 전적으로 믿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AD 48 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을 때, 그 교회는 대체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 장의 문화적 충돌로 보아, 사도 바울이 편지하던 그 때에 그들 사이에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그때 그의 편지에서,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여!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내몰았으나, 감히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쫓아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뺨으실 때,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 구절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그 보다 더 심각한, 반유대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p>
<p>Paul’s concern in relation to this turnabout is also <u>theological</u>: “As far as the gospel is concerned, they are enemies on your account; but as far as election is concerned, they are loved on account of the patriarchs, for</p>	<p>이 반전에 관한 사도 바울의 염려는 또한 신학적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p>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Just as you who were at one time disobedient to God have now received mercy as a result of their disobedience, so they too have now become disobedient in order that they too may now receive mercy as a result of God's mercy to you. For God has bound all men over to disobedience so that he may have mercy on them all" (Romans 11: 28-32). At the moment, the Jewish people may be opposing and persecuting Christians, but God's covenant and promise are irrevocable. God entered into an eternal covenant with Abraham. Has he gone back on that deal, or does Israel have a future in the plans and purposes of God? That is what Romans 11 is all about – it is not just the history of Israel, but the mystery of Israel: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brothers, so that you may not be conceited: Israel has experienced a hardening in part until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has come in.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Romans 11: 25-26). What Paul is saying here is that there is a huge secret in the Bible that he wants to share with us. The word "mystery" is another word for the gospel. The gospel is an open secret, and it concerns the Jews. Has God finished with the Jewish people? Paul's response is clear: "Did God reject his people? By no means!" (11: 1);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Not at all!" (11: 11) Israel has a past, she has a present and she has a future. Her past rejection of her Messiah does not mean that God has written her off. Israel's present unbelief is not total; it is not pointless; and it is not final. Let us look at each of those points in turn: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롬 11:28-32). 지금,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가 그 거래를 돌이키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안에 이스라엘은 장래가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1 장의 모든 것입니다. 이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5-26).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와 함께 나누고픈 커다란 비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며, 이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나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1).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11:11). 이스라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을 그들을 단념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 불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이는 무의미함도 아니고 또한 마지막도 아닙니다. 차례차례 이러한 관점의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rael's Fall is Not Total (vv. 1-10)
Paul himself is proof of the fact that Israel's fall is not total. He himself is an Israelite – a person who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ndeed "the worst of sinners" as he gives testimony in 1 Timothy 1: 12-17. "God did not reject his people", he says in verse 2 of Romans 11. "God didn't reject me. If ever a Jew deserved to be tossed out for rejecting the Messiah, it's me", he says. "If God can save me, he can save anybody", says Paul. So never write anyone off, however hard the case may seem. Why did Paul keep knocking on synagogue doors? Why did he keep exposing himself to such threats and persecution? Why did he become as a Jew to win the Jews? Because of what God had done in his life. If you want any justification for Jewish evangelism, Paul says, look at what God has done to me! What a wonderful argument! Perhaps when you look at your family circle or amongst your friends, you lose hope that that person you have been praying for will ever be saved. Well, just think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If he can do it for you, he can do it for anyone, can't he?

1.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전부가 아닙니다.(1-10 절)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 스스로도 이스라엘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12-17 에서 그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는 "일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었으며, 더군다나 "죄인중의 괴수"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11 장의 2 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내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유대인이었던 나였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누구도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 문들을 두드렸을까요? 왜 그는 계속해서 그러한 협박과 핍박에 스스로를 노출시켰을까요? 왜 그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이 되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행하셨던 것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여러분이 유대인 복음 전도를 위한 그 어떤 정당성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주장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또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란 희망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셨던 것을

	<p>생각하십시오. 만일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p>
<p>But it is not just a case of the occasional conversion from amongst the Jewish people. It is bigger than that – there is a remnant. Look at verses 2-4. The time of Elijah must have been Israel’s darkest hour. Things were so far gone under Ahab and Jezebel that Elijah actually pleaded with God against Israel. Israel, Elijah thought, had fallen beyond any hope of recovery, and God must have finished with them. But what does God say? “I have reserved for myself seven thousand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11: 4) One of those 7,000 was Obadiah – and there he was in Ahab’s administration as the man in charge of the palace, right under Ahab’s nose! Even in the worst of times, when it looks like wholesale apostasy, God never leaves himself without a witness. There is always “a remnant chosen by grace” (11: 5), and it is much bigger than you think.</p>	<p>그러나 이는 단순히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간헐적인 전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이보다 훨씬 더 큼니다 – 여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2 절-4 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탄원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지배아래서 모든 것은 너무 멀리가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의 관계를 끝마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명을 남겨 두었다” (11:4). 그 칠천명 가운데 하나는 오바다였습니다. 그는 아합의 행정부에 공을 책임지는 자로서, 바로 아합의 측근 관리였습니다. 심지어 대규모의 변절 같아 보이는 최악의 때에도, 하나님은 증인없이 스스로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11:5)가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p>
<p>When Paul went up to Jerusalem with “the collection” from Gentile Christians to relieve famine and persecution amongst Jewish Christians in Jerusalem, Luke tells us in Acts, “When we arrived at Jerusalem, the brothers received us warmly. The next day Paul and the rest of us went to see James, and all the elders were present. Paul greeted them and reported in detail what God had been doing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When they heard this, they praised God. Then they said to Paul: “You see, brother, how many thousands of Jews have believed.....” (Acts 21: 17-20) There were Jewish believers, thousands of them! Indeed, someone has estimated that, when Paul wrote Romans, there may well have been upward of three hundred thousand Jewish believers in the Christian church. So, Israel’s fall is not total.</p>	<p>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 크리스천 사이의 기근과 박해를 덜기 위해, 이방인 크리스천들로부터 “모금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수만 명이 있으니...”(행 21:17-2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려 삼십만 이상의 믿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전부가 아닙니다.</p>
<p>2. <u>Israel’s Fall is Not Pointless</u> (verses 11-24) Israel’s fall is not pointless but rather it was all part of the plan and purpose of God to save the world, and to fulfil his promise to Abraham to bring the blessing of Abraham to all the nations: “Again I ask: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Not at all! Rather,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to make Israel envious” (11: 11). No wonder Paul calls Israel’s reversal of fortune a mystery! If you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the world, you would never have come up with a plan like that. No wonder Paul bursts into praise at the end of the chapter.</p>	<p>2. <u>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11-24 절)</u>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무의미하다기 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일환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열방에도 전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11:11).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성쇠의 반전을 신비로 여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떠올려야 했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계획을 생각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의 마지막에서 칭송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p>

<p>Paul uses a horticultural metaphor to try and explain to us what is happening. He talks about the olive tree, which is a biblical symbol of Israel (Jeremiah 11: 16). God has not uprooted the olive tree – he has only broken off some branches. He has broken off some dead wood in order to bring in Gentiles, so that we might be nurtured by the same root, so that the Jewish Scriptures might also become our Scriptures, and so that we might call Yahweh, “Abba, Father”! “Consider, therefore”, Paul says in v. 22, “the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sternness to those who fell, but kindness to you, provided that you continue in his kindness. Otherwise you also will be cut off”. Think about that – the kindness and the sternness of God. The Bible does not teach that God hates the sin but loves the sinner – it says that he is angry with the sinner every day. But, unlike our anger, his anger is that of a loving God – he is angrily loving and lovingly angry. The amazing thing is that when God gets angry he reaches out to people.</p>	<p>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 원예적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성서적 상징인(렘 11:16) 감람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람나무의 뿌리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일부 나뭇가지를 잘라 내셨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들이기 위해 죽은가지를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같은 뿌리로부터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유대인의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야훼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2 절에서 말하는 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매일 죄인에게 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냄과 같지 않게, 그의 성내심은 사랑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성내어 사랑하시며, 자비롭게 화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내실 때, 그는 백성들에게 손길을 뻗으십니다.</p>
<p>Something very scary and yet at the same time very wonderful is happening here. God has not uprooted the olive tree – he has broken off the dead wood so that he can graft you in. But don’t become proud, Paul warns the church in Rome. The only reason that you are Christians at all is because of the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in his desire to save his ancient people. What God wants is <u>more</u> than a remnant. Think again of the parable of the two sons in Luke 15. Both sons are lost – one far away, the other close to home. At the end of the parable the older brother, who had stayed dutifully at home, became angry at seeing grace lavished upon his younger brother and refused to come in to the party. So his father went out and pleaded with him. That is what God is doing in the world today. As Gentiles are being brought in, God is pleading with the older brother, with Israel, provoking him to jealousy, and longing for him to come in.</p>	<p>매우 무서우며 동시에 매우 경이로운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람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은 가지를 잘라내어 여러분을 여기에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의 오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 <u>그 이상</u>입니다. 누가복음 15 장의 두 아들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 모두를, 하나는 멀리서, 다른 하나는 집 가까이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에, 집에 머물며 순종하였던 그 장자는 그의 남동생에게 아낌없이 퍼부어지는 자비를 보며 화가 나게 되었고, 그 잔치에 참여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나아가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불리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장자,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며, 그의 시기함을 유발하시고, 또 그가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p>
<p>Eugene Peterson’s paraphrase of verses 11 and 12 in the Message are helpful here: “When (the Jews) walked out, they left the door open and the outsiders walked in. But the next thing you know, the Jews were starting to wonder if perhaps they had walked out on a good thing. Now, if their leaving triggered this worldwide coming of non-Jewish outsiders to God’s kingdom, just imagine the effect of their coming back! What a homecoming!” God is working out his plans and purposes. He has not moved on to Plan B – he is sovereignly carrying out his purposes, and he knows what he is doing.</p>	<p>유진 피터슨의 “메세지”의 11,12 절에 대한 의역이 이에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그 문을 연 채로 두었고, 이방인들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음 일은,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들이 좋은 것을 두고 떠나갔을지 모른다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떠남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으로의 전 세계적인 도래를 촉발한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의 효과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귀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Plan B 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주권적으로 그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p>

<p>3. <u>Israel's Fall is Not Final</u> (vv. 25-32) Israel's fall is not total, nor is it pointless and, lastly, it is not final, the remnant are not "leftovers". They are described in verse 16 as the "firstfruits", the promise of a spiritual harvest among the Jews. Such an outcome is more than hinted at in vv. 12, 15: "But if their transgression means riches for the world, and their loss means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greater riches will their full inclusion bring!.....For if their rejection brought reconciliation to the world, what will their acceptance be but life from the dead?" The repercussions will be immense! What does Paul mean when he refers to "life from the dead"? He does not mean resurrection. No, I believe that he is talking here about Ezekiel's vision of the valley of dry bones (Ezekiel 37). Try to imagine Paul's experience as he went around the Mediterranean, fronting up to the synagogues Sabbath after Sabbath! He must surely have asked himself at times, "Can these bones live?"</p>	<p>3.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25-32 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전부가 아니며, 무의미하지도 않으며, 끝으로, 이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은 "떨겨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16 절에서 "첫 수확물"로 여겨진, 유대인 사이의 영적 수확의 약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12 절과 15 절에서 암시된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언급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비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겔 37 장). 때 회중의 안식일마다 향하며, 지중해 주변을 다녔던 사도 바울의 경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는 스스로에게 매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요?"하고 물었을 것입니다.</p>
<p>We need to be clear that we are not talking about anything political – about the nation of Israel as a political entity. What we have here is to be understood spiritually and evangelistically. It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revival, the spiritual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Indeed such a widespread revival amongst Jewish people that "all Israel will be saved" (v. 26). Some say that "all Israel" means the church, made up of Jews and Gentiles. But that would be very confusing, because in Romans 9-11 Paul has talked about "Israel" 11 times, and each time he is referring to his fellow Jews. Others say that Paul is talking about the elect Jews, the Israel within Israel. But if Paul is simply saying that all the elect Jews will be saved, then that is hardly a "mystery". What, then, does he mean?</p>	<p>우리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것을, 정치적 독립체로서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활의 의미로,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회복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보편화된 부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26 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11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11 번 거론하였고, 그때마다 그는 이를 동료 유대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선택된 유대인들을 거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단순히 모든 선택받은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는 "신비"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p>
<p>In 2 Corinthians 3: 14-16, Paul talks about the veil being taken away: "But their minds were made dull, for to this day the same veil remains when the old covenant is read. It has not been removed, because only in Christ is it taken away. Even to this day when Moses is read, a veil covers their hearts. But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What is being promised is a "turning to the Lord" on an unprecedented scale. Somewhere, at some time, God is going to lift the veil that prevents Israel from seeing the truth of the Gospel, and there will be such a widespread turning to the Lord that you will be able to say that "all Israel" is saved. That is <u>not</u> the same as saying that <u>every</u> Jew will be saved. If you say, for example, "all Australians are sports mad", you do not mean that every single Australian is sports mad – it just seems like that. In the same way, the time is coming when "all Israel" will be worshipping the Lamb of God – not "every Israelite", but "all Israel". That is God's intention – overflowing grace, spilling</p>	<p>고린도후서 3:14-16 에서, 사도 바울은 수건의 벗겨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약속되어야 할 것은 전례없는 규모의 "주께로 돌아감"입니다.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바라봄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을 들어올리실 것이며,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광범위한 하나님께로의 선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u>모든, 하나하나의</u>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u>같지</u> 않습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 "온 호주인들이 스포츠에 열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각각의 모든 호주인이 스포츠에 열광한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게 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p>

<p>over freely from one to another. And that is what he is doing in the world now, so that all nations, tribes and tongues will be there around the throne – and amongst them the Jewish nation and the Hebrew tongue.</p>	<p>“온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막힘없이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열방과 온 족속들이 – 그들 가운데 유대 국가와 히브리인들 또한 - 그 보좌 주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p>
<p>4. <u>Our Response</u> How does this “mystery” apply to us, and what impact should it have? <u>First</u>, it ought to humble us. The reason Paul wrote to a predominantly Gentile church in Rome about the future of the Jews was to put the Gentiles in their place. “Do not be arrogant, but tremble”, he says (11: 20). And “do not consider yourself to be superior” (11: 18). And again, “do not be conceited” (11: 25). There is no place for pride or arrogance or anti-Semitism. We Gentiles are guests in Israel’s house. <u>Secondly</u>, such a hope ought to excite u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says that when we pray the second petition of the Lord’s Prayer – that is “Your kingdom come.... – “We pray, that the kingdom of sin and Satan may be destroyed, the gospel propagated throughout the world, the Jews called,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brought in.....that Christ would rule in our hearts here, and hasten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In the 18th century, this hope drove men and women around the world to start “concerts of prayer” and launched the modern missions movement. This great hope should make us confident in the certain success of the gospel. It should excite us to pray and to work together. Let us agree to disagree on minor things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the wider church, while respecting one another’s convictions. Let us get on with the real business of pr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spel as witnesses and ambassadors for Christ – the gospel which Jesus said must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before the end will come (Matthew 24: 14) <u>Finally</u>, it ought to lead us to worship. At the end of Romans 11, theology becomes doxology as Paul bursts into a song of praise and worship. Our God is not some tribal deity. He is the God of the world, the sovereign Lord of human history: “Oh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s been his counsellor?” “Who has ever given to God, that God should repay them?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11: 33-36).</p>	<p>4. <u>우리의 대응</u>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것 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의 미래에 대하여 편지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11:20), “우월하게 스스로를 여기지 말라” (11:18), “자만하지 말라”(11:25)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함, 거만함 또는 반유대주의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집의 손님들입니다. <u>둘째로</u>, 이러한 희망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것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번째 기원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어질 수 있기를, 복음이 온 세상과, 불리워진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이곳 우리의 가슴에서 통치하시고, 그의 재림의 때를 서두르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8 세기에, 이 희망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기도함주회”를 시작하도록 만들었으며, 근대의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희망은 복음의 확실한 성공에 우리를 자신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기도하고 함께 일하도록 흥분시킬 것입니다. 서로간의 확신을 존중하면서, 넓은 의미의 교회에서 주 안의 우리의 형제, 자매와의 작은 불일치를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대사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끝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그 복음(마 24:14)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u>마지막으로</u>, 이는 우리를 예배로 인도할 것 입니다. 로마서 11 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찬양과 예배의 노래를 터뜨리며, 신학은 영광의 찬가가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일부 부족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인간 역사의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11:33-36)</p>

Amen